

여행&뉴스

■ 새들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문경새재 즐기기

문경 |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경북 문경에는 반드시 봐야 할 게 있다. 문경새재다. 조선시대 영남과 한양을 잇는 길로 경제와 국방의 요충지 역할을 한 문경새재의 이름에는 '새도 날아서 힘든 고개'라는 뜻이 들어 있다. 그만큼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다.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에게 문경새재는 시험 전 반드시 넘어야 하는 도전 대상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험한 산세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도 멀리 돌아와 이 고개를 택한 선비가 많았다. 이 길을 지나간 장원급제한 사람이 많아서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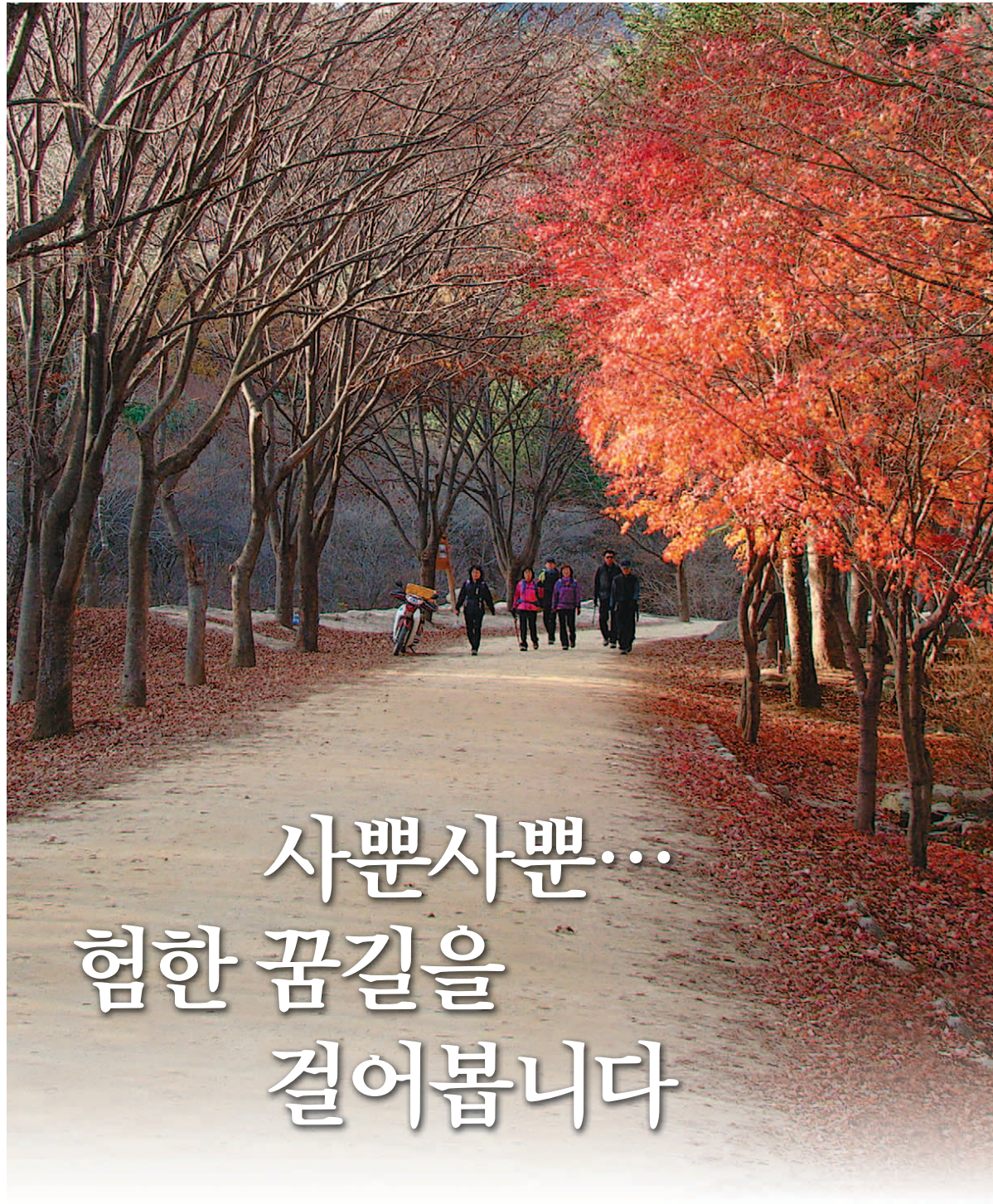
문경새재 도립공원(054-571-0709)에 들어갔다. 다행스럽게 힘이 들지는 않다. 관광객들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거의 평지에 가까운 산책로를 조성해서다. 제1관문(주출관)부터 제2관문(조곡관)을 거쳐 제3관문(조령관)까지의 거리는 약 6.5km. 왕복 13km의 거리로 천천히 걸으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힘든 코스를 원하면 등산로를 택하면 된다.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11월의 바람이 시리면서도 상쾌하다. 한 번 크게 숨을 들이킨다. 자연의 살아 숨쉬는 바람이 코로 들어와 폐까지 내려가는 느낌이다. 자연은 시각적인 편안함도 안겨 준다. 알몸을 드러낸 나무 가지와 울긋불긋 마지막 빛을 발하는 단풍이 만드는 조화가 일품이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또 어떤가. 바닥의 돌맹이가 또렷하게 보이는 그림 또한 가히 최고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봐야 한다.

'대조영', '대왕세종' 등 급작급작한 사극을 촬영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이 왼쪽에 나타난다. 광화문에서 현재 광화문 사거리까지를 재현한 '육조 거리'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육조 거리는 육조(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가 광화문 앞 좌우에 위치한 정치의 심장부로 한양 제일의 길로 여겨졌다. 문득 현재의 광화문 사거리 모습이 떠올라 세월의 간극이 느껴진다.

산책로에서 인기 있는 장소는 조령원터와 주막이다. 조령원은 조선시대 출장을 떠난 관리에게 숙박과 편의를 제공한 시설. 건물이 소실된 조령원의 옛터에서 여장을 풀던 관리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주막에서는 장원급제의 꿈을 품고 이 곳을 지나던 선비와 무거운 짐을 진 상인 등



사뿐사뿐... 힘한 꿈길을 걸어봅니다

오상현 나무 가지와 일목일목한 단풍이 대비를 이루는 문경새재 산책로. 문경새재 산책로를 걷는 여행객들.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역사를 느끼는 순간이다.

이 여독을 풀기 위해 마시던 막걸리 한 잔의 냄새가 느껴지는 듯 하다.

문경에 놀러 오면 문경철로자전거 타는 재미를 놓칠 수 없다. 진남역(054-553-8300)이나 불정역(054-552-2356)으로 가면 폐쇄된 철로에 부착된 철로자전거를 최대 4인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다. 진남 코스는 섬에 물이 들어나가는 것처럼 만들어졌고, 불정 코스는 옛 광업소 자리에 위치해 탄광의 터널을 느낄 수 있도록 돼 있다.

철로자전거는 불정역에 35대, 진남역에 40대가 있는데 주말에는 2000여명이 타고 갈 정도로 많이 몰린다. 평일과 달리 주말에는 예약을 받지 않아 오전에 와서 표를 끊고 다른 곳을 구경하다 오후에 시간 맞춰 와서 타는 사람이 많다. 코스 길이는 왕복 4km로 대략 40분 걸린다. 철로 자전거 1대 가격은 450만원.

불정역에는 폐열차의 실내를 리노베이션해 숙박이 가

선비들 '장원급제' 꿈 안고 넘던 험한 과거길
도립공원 산책로 단장...조령원터엔 옛 정취
'물길 같은 철길' 달리는 철도 자전거도 재미

능하도록 만든 열차 펜션이 인기다. 좋거나 편리한 펜션은 아니지만 기자에서 하루 밤을 잘 수 있다는 이색 체험 때문에 주말에는 방이 없을 정도다.

여행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단연 맛있는 음식이다. 문경은 약돌돼지가 유명하다. 게르마늄과 셀레늄을 함유한 약돌을 갈아 사료로 먹인 약돌돼지는 돼지 특유의 냄새가 없고 육질이 쫄깃쫄깃해 가격도 일반 돼지보다 6% 가량 비싸다. 문경새재 앞에는 새재할매집, 새재초곡관, 탄광촌 등 약돌돼지를 파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스타워즈가 두동실 16일(현지시간) 멕시코 레온(Leon)에서 열린 '열기구 축제'에서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얼굴모양을 한 열기구가 참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멕시코 | 로이터연합뉴스

주행연습 폐지...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단해진다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등 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기능교육이 폐지되고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한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로주행연습도 폐지하고, 교통안전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신종플루보다 더 치명적인 변종플루 발생

우크라이나에서 신종플루(H1N1)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확산 속도도 빠른 것으로 보이는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바이러스는 3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89명에 달하고 100만명 이상이 감염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빅토르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TV 인터뷰에서 "2가지의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캘리포니아 플루가 동시에 발생했다"며 이 3가지 바이러스의 조합이 훨씬 더 치명적인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자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했다.

용평리조트 등 강원지역 스키장 재개장

강원 평창군 휘닉스파크와 용평리조트, 횡성의 현대성우리조트가 17일 스키장을 재개장했다. 휘닉스파크와 용평리조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내린 폭설에 추위까지 찾아와 예년보다 보름이나 빠른 지난 9일 스키장을 개장했지만 이후 따뜻한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슬로프의 눈이 모두 녹아 9일부터 휴장했다. 그러나 스키장 측은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영하의 겨울 날씨를 보이자 제설기를 총동원해 인공눈 만들기 작업을 벌여 휘닉스파크는 펭귄, 호크 등 2개 슬로프를, 용평리조트는 옐로 슬로프를, 현대 성우리조트는 알파2 등 2개 슬로프를 17일 각각 재개장했다.

편집 | 작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사랑을 뿌리는 '색동 날개'

원성일 기자 sereno@donga.com

금호아시아나, 매년 단체 헌혈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 기증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업을 통한 국가공헌 및 사회기여'라는 경영철학하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헌혈운동'의 경우 매년 그룹 및 계열사 단체헌혈(사진)을 시행해 헌혈증서를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 물품기증 캠페인도 활발하다. 2004년부터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진행해온 이 캠페인을 통해 금호아시아나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은 지난해에만 8만 1000여 점이 넘었다. 이렇게 전달된 물품은 전국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서 판매돼 전액이 자선과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문화예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공익사업인 메세나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1955년 그룹의 공익단체인 학교법인 죽호학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육성사업을 펼쳐왔으며 현재까지 연 인원 약 2만4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금호아시아나

세계적 호텔 예약 '호텔스닷컴' 한국어 웹사이트 콘텐츠 강화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세계적인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www.hotels.co.kr)이 한국 시장 내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호텔스닷컴 요한 스반스트롬 아태지역 사장은 10일 한국어 웹사이트 오픈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한국에 간다고 하니 아내가 몹시 부러워했다. 한국을 아시아 5대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마케팅 지출을 늘려 브랜드를 알릴 것이다. 한국어 웹사이트의 콘텐츠도 강화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호텔스닷컴은 전 세계 52개 국가에서 현지 언어로 10만 개 이상의 호텔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저가 객실료 보장과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없는 게 특징이다.



외국인주부를 '김장 이웃사랑 우리도 동참' 성동구 여성단체연합회가 17일 서울 성동구청 광장에서 개최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장에 외국인 주부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김장김치를 자랑하고 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